

제11대 총여학생회의 입장에 대한 해명 및 사과

< 제 10 대 총여학생회의 이의에 대해서 >

제11대 총여학생회(이하 총여)의 입장에 대해 제10대 총여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들에 대한 해명 및 사과를 하고자 합니다.

1. "방2에는 총여 컴퓨터와 랜선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총여실의 핵심사무국인 공간입니다."

- 컴퓨터와 랜선은 이동이 가능하였으나, 11대 총여는 보안상 방2에 컴퓨터와 랜선을 그대로 두고 핵심 사무국으로 정의하여 쓰려고 하였습니다.

2. "더욱 놀라웠던 것은 처음에 총여실을 방문했을 때와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방2의 상황이 바뀌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분명 개표 전 처음 총여실 내부를 둘러볼 때에는 방2에 아무런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표 후 여성창조가 당선되고 두 번째로 이월을 위해 갔을 때에는 방2의 문에 두입술과 생활도서관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표지가 붙었을까요?"

- 제11대 부회장과 집행부 1명이 본 바에 의하여 기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래 방2의 문에 표지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3. "이러한 입장차이는 서로 존중되어야 하며 따라서 10대의 기조를 11대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10대가 지키려는 기조가 있었다면 11대 역시 지키고자 하는 기조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최소한 임기 기간동안 인정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이월하는 과정에서 10대는 두입술과 생도에게 방2를 주었으니 11대와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강요란 11대의 주관적인 느낌이었고 자보화 되기에는 부적절한 내용이었습니다.

4. "10대에서는 자유롭게 공간을 함께 사용하였으나 선거에서 낙선되자 안정된 공간의 확보를 위해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치단체라고 하면서 자치적인 노력보다는 10대 총여에서 인정된 바를 계속 유지하려고만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들은 11대 총여를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투쟁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통신에서의 걱정적 논조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10대에서는 자치단체들이 자유롭게 공간을 함께 사용하였으나 (경선팀 이) 선거에서 낙선되자 (자치단체들이) 안정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즉 그들은... 이 부분에서는 문장의 주어가 빠지고 이후 문장에서 '그들'에 해당하는 주체가 명시되지 않음으로 인해 10대와 경선팀과 자치단체들을 한 묶음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통신에서의 걱정적 논조 역시 자치단체들의 글을 토대로 한 것이고, 그 때의 상황에서 그 정도의 논조는 걱정적이라고 표현하기에 부적합했음을 밝힙니다.

5. "9대 이후 1996년도에 총여선거가 무산되고, 여성자치단체들이 그 공간을 점유하였습니다. 당시 총학을 비롯한 중운위에서는 선거를 거치지 않은 단체가 총여실을 사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으나, 여성자치단체들은 그 공간을 계속 점유하였습니다."

- 10대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시 34대 총학의 입장에서는 선거를 거치지 않은 단체가 총여실을 사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으나, 그 후 중운위에서는 여러 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총여실을 사용하자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공간을 사용한 여성운동단체들은 성정치 위원회, 여성학 소모임, 법대 동쪽(동그래지는 온쪽이),-이상 여성자치연합- 그리고, 사회대 Beyond, 애포레, H.O.P.E., 보금자리, 대학생 대중문화감시단 내 여성문제 모임 등 8개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6. "결국 10대에서는 자치단체들이 연합하여 선거를 후보에 내었고 당시 경쟁하였던 상대팀이 당선될 경우 자치단체들이 이 공간을 떠나겠다고 유세기간 중 약속하였습니다."

- 10대 총여선거에서 마주잡기 선본은 자신이 당선될 경우 자치단체들이 총여공간을 떠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위 서술은 마주잡기 선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10대에서는 이러한 약속을 한 적이 없다

고 합니다.

7. "게다가 공간사용권을 요구하는 단체도 10대 때 만들어진 두입술과 생도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10대 때 만든 단체를 독립시켜 임기 후에도 계속 자신의 지지기반을 잃지 않으려 하는 전략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더 당황되는 것은 총여 공간을 점유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들의 장들이 모두 10대 집행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총여 캐비넷과 컴퓨터 및 공간을 주로 사용해오던 단체는 열세번째, 움, Beyond, 10대 산하에서 독립한 두입술, 생도 등이고 이 단체의 장이 10대 총여 집행부를 겸하고 있었습니다.(명단 참조)"

"<제10대 총여학생회 임원명단> 이하 생략"

- 이는 10대 때 만들어져 독립된 두입술과 생도의 공간을 잃지 않으려하는...(정정)

10대와 면담을 한 결과, 10대는 공간사용권과 자신과의 관련성은 무리가 있다고 보았고 이에 11대도 합의 하였으며 임원명단의 경우에도 10대가 학교측에 제출한 임원명단과 실제명단이 일치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참고로 저희가 제시한 명단은 학교측에서 얻은 것입니다.)

8. "공간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비유를 들며 선거를 통한 학생회의 공간사용 정당성을 이야기 했을 때 최승민 씨는 그 비유가 총여 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11대 총여는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최승민씨는 민주주의를 비롯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용납되는 기존의 모든 원칙들에 의문을 던진다고 하였다. 이 말에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될 수 없었고, 우선 10대 총여의 중립성 확인에 그치게 되었다."

- 이 부분은 공간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논의의 초점에서 벗어난 내용이 자보에 실렸습니다. 또한 당시 10대 부회장은 공간 문제를 논의하던 중 서로의 기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11대 부회장이 '20년동안 우리가 배워 온 보편성'을 주장하자 여기에 이의를 제기했을 따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에...(인용) 이후는 삭제합니다.

9. "최승민씨는 자신을 두입술의 전달자라 자처하며 두입술은 페인트칠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당시 11대 부회장이 "최승민씨가 두 입술 대변자냐?" 라고 문제제기를 해서 최승민씨는 "대변자가 아니라 두입술의 말을 전달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후 문장에서 말문이 막혔던 것은 11대 부회장의 개인적 입장이었습니다.

10. "이번 일은 10대 총여와 관련된 몇 개의 여성자치단체들이 10대의 임기 이후에도 계속 공간을 점유하려는 생각에 대한 일침이며, 형평성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 이러한 결론은 그간의 공간논의를 겪으면서 11대가 느꼈던 부분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고 서로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을 자보화하였음을 밝힙니다.

11대 총여의 입장 중 10대 총여에서 문제제기한 모든 부분에 대해 위의 명과 더불어 10대 총여 집행부에게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8, 9번 에 대해서는 개인을 거론한 것에 대해 특별히 10대 부회장이었던 최승민 씨에게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공간 문제에 있어서 10대 총여와 자치 단체와의 관련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전체 학우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임기 초기에 부족했던 부분을 거울 삼아 앞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